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13호

발행인 : 조민제
발행일 : 2014년 1월 20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노동자 죽이기에 발벗고 나선 재판부

법원 앞에만 가면 국민은 불평등하다!

우리는 모두 법 앞에 모두 평등하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법원에만 가면 이 말이 안통한다. 법은 자본과 권력에게 굴복한다. 최근에 이어진 통상임금 판결, 콜텍 정리해고 판결, 대전노동청 투쟁 판결을 보면 노골적이어도 너무 노골적이다. 노동자의 권리는 사용자의 권리 아래에 있다고 판결한다. 무조건 사용자가 우선이다. 법 앞에는 평등할지 몰라도 법원 앞에서는 평등하지 않다.

정리해고를 해도, 임금을 떼먹어도 OK?!

법을 해석하고 판결을 내리는 재판부는 행정부나 국회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런데 2014년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이 손잡고 노동자 서민을 등쳐먹는 형국이다.
지부와 관련있는 내용만 살펴봐도 사례는 무궁무진하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GM사장에게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하자, 대법원은 통상임금 소송에 난도질을 해놓는 판결을 내놓았다. 정기상여금 및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기업에 부담을 주는 금액은 청구할 수 없다는 기가 막힌 판결을 했다. 기업이 임금을 떼먹었지만, 노동자가 떼인 임금 받아가면 기업이 망할지도 모르니 떼인 임금은 그냥 묻어두라는 것이다.
콜텍의 정리해고 판결도 지나가던 개가 웃을 만한 판결이었다. 당장 회사가 어려울 정도는 아니지만 나중에 어려워질 수 있으니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것이다. 이건 어느 기업이든 언제든지 정리해고 해도 문제 없다는 이야기랑 똑같은 말이다.
그런 법원이 노조파괴 사업주를 처벌하라는 요구를 걸고 노동청을 상대로 투쟁했던 노동자들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벌금까지 중한 처벌을 내렸다. 심지어 노동청장이 해결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한 내용을 지키라고 요구한 투쟁이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노동자의 힘으로!

최소한의 사법 정의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많은 실망을 줄 수 있는 판결들이지만, 사실 법원이 노동자들의 편이었던 적은 없었다. 언제나 현장의 힘이 뒷받침 될 때만 투쟁은 승리할 수 있었고, 우리는 그렇게 투쟁해왔다.

밀양 주민의 희생으로 오는 전기는 필요없다! 765kV 초고압 송전탑 반대!

밀양 희망버스

충북 : 2014년 1월 25일(토) 10:00 / 17:00 청주 상당공원 *2차례 출발
대전 : 2014년 1월 25일(토) 출발 시간 및 장소는 추후공지

콘티넨탈 해고 무효소송 판결 나온다

1월 24일(금)로 예정된 해고 무효소송에서 콘티넨탈 2명의 해고자에 대한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대상자는 박윤종 지회장과 김종원 수석부지부장(당시 콘티넨탈 부지회장)이다. 2명의 동지는 콘티넨탈의 노조파괴 공작의 일환으로 부당하게 해고당한 뒤 1년 반이 넘게 해고자의 삶을 살며 고통받고 있다.

최근 법원의 행태를 보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원이 아주 노골적으로 자본의 편을 들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임금, 콜텍의 정리해고, 노동청 투쟁에 대한 판결에서 아주 심각하게 자본 편향적인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콘티넨탈의 해고는 누가 봐도 부당한 징계였다는 게 대부분의 시각이다. 문제는 지금 같은 자본 편향적인 재판부가 또 어떤 장난질을 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콘티넨탈지회는 노조파괴 공작 이후에 힘겹게 싸움을 하고 있다. 360명의 조합원들은 50명으로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더 당당하게 금속노조를 지키고 있다. 가족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는 일념으로 금속노조를 지키고 있다. 지금껏 힘겹게 금속노조를 지켜온 조합원들의 신념에 이제 법원이 정당한 판결로 보답해야할 때다. 부당해고 1년 반은 너무 길다.





금속노조, 2.25 국민총파업 찬반투표

금속노조가 2월25일 국민총파업 성사를 위해 2월17일부터 2월19일까지 사흘간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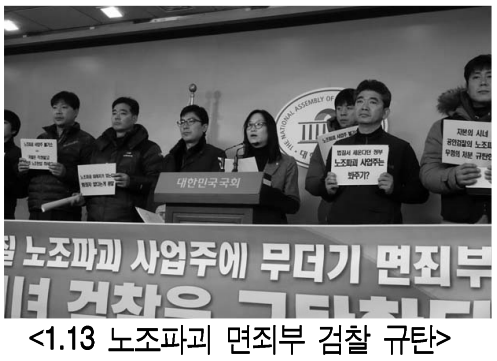
노조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는 민주노총의 '박근혜 퇴진' 국민총파업 취지에 더해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규탄 △정부의 한국지엠 유럽 수출 물량 철수 결정 규탄 △노조파괴 사업주 무더기 무혐의 처리 규탄 △간접고용 남용하는 현대차-삼성전자 등 재벌규제 방기 규탄 등 의제를 포함해 총파업을 조직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2월22일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 이후 △박근혜 퇴진 △노동탄압 분쇄 △민영화-연금개악 저지를 위해 12월28일, 1월9일 1, 2차 총파업에 이어 박근혜 정권 취임 1년인 2월25일 국민총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2월25일 국민총파업 현장 조직을 위해 1월20일부터 노조 임원 현장순회와 지부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진행한다. 전체 사업장은 현장과 지역에 국민총파업을 알리는 현수막과 대자보를 게시하고, 전체 조합원 교육과 선전전을 진행한다.

이 주의 사진

※ 사진 제보받습니다_iswcool@naver.com



<1.13 노조파괴 면죄부 검찰 규탄>



<1.18 검찰 규탄 금속 결의대회>



<1.18 검찰 규탄 금속 결의대회>


<1.20 눈 내린 유성 고공농성장>